학술 소식

천태종의 한국적 정체성은

천태불교문화硏, 12일 학술대회

천태종의 한국적 정체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관문사 2층 대강당에서 '천태종의 한국적 특성과 그 정체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이 '천태종의 정체성 확립과 그 방향'을, 금강대 교수 광도 스님이 '천태종의 수행체계와 생활불교'를, 고우익 前 금강승가대 교수가 '천태종 출가자의 일상행의와 제도'를,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보편적 지구윤리로서의 십선계'를, 이혜숙 금강대 객원교수가 '천태종의 종도복지에 관한 고찰'을, 석길암 동국대 교수가 '천태종의 불교전통 계승과 발전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는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천태종 교육부장 장호 스님,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 이용권 천태종복지재단 이사, 권기현 위덕대 교수가 참여한다. (02)3460-5228

신성민 기자

종림 스님에게 듣는 '중론' 강의

중관학당, 11일 '중론' 강독 종강 기념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에게 '중론'의 중요성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산하 책박물관 고반재 배움터 '중관학당'은 11월 11일 저녁 7시 서울 종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종림 스님을 초청해 '〈중론〉의 중요성과 이제론'을 주제로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중관학당이 10월 7일부터 매주 개최하고 있는 〈중론〉 원전 강독의 종강을 기념해 열린다. 강의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선착순 40명만 모집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측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학승 종림 스님이 해석하는 〈중론〉의 이제론 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010)8801-4037

신성민 기자

禪불교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국선학회 11월 무료 시민 강좌 실시

선(禪) 사상에 대한 전반을 알 수 있는 시민 강좌가 열린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은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연세대 문과대학 위당관 415호 강의실에서 선불교 무료 시민 강좌를 실시한다.

선불교 대중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시민 강좌는 선 관련 전문 서적을 번역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끈다.

강의는 11월 5일 동국대 불교학부 정운 스님의 '명상, 너무 멀리서 찾지 말자'를 시작으로 △12일 '조당집 읽기'(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교수) △19일 경허선사의 선과 시(이상하 국립고전국역원 교수) △26일 '대혜선사의 선과 사대부와의 편지'(전재강 안동대 교수) 등으로 이뤄진다.

또한 12월 3일 '〈종경록〉의 세계 · 무심, 돈오 · 무념' 주제로 열리는 한국선학회 국제학술회의에도 참석이 가능하다.

강의 참여는 선착순 45명이며, 희망자는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연세대 철학과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한국선학회는 "많은 사찰과 불교단체의 후원으로 학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처님께 올린 귀한 보시를 다시 세상에 회향하고자, 시민들을 위한 무료 강좌를 개설했다"면서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독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10)7696-2906

신성민 기자

"적극적 사회 참여가 21세기 보살의 길"

정호영 교수, 5일 故 이기영 박사 보살관 조명

한불연, 20주기 세미나 개최
이기영 보살관 핵심은 '不二'
원효 '귀일심원 · 요익중생' 강조
"우리도 시대의 보살이 돼야"

생전에 원효 스님 연구에 남다른 족적을 남긴 불연 이기영(1922~1996, 사진) 박사의 보살관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태승)은 11월 5일 이기영 박사 타계 20주기를 맞아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보살-대승불교 수행자의 이상'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는 '보살, 그는 누구인가' 발표 논문을 통해 이기영 박사의 보살관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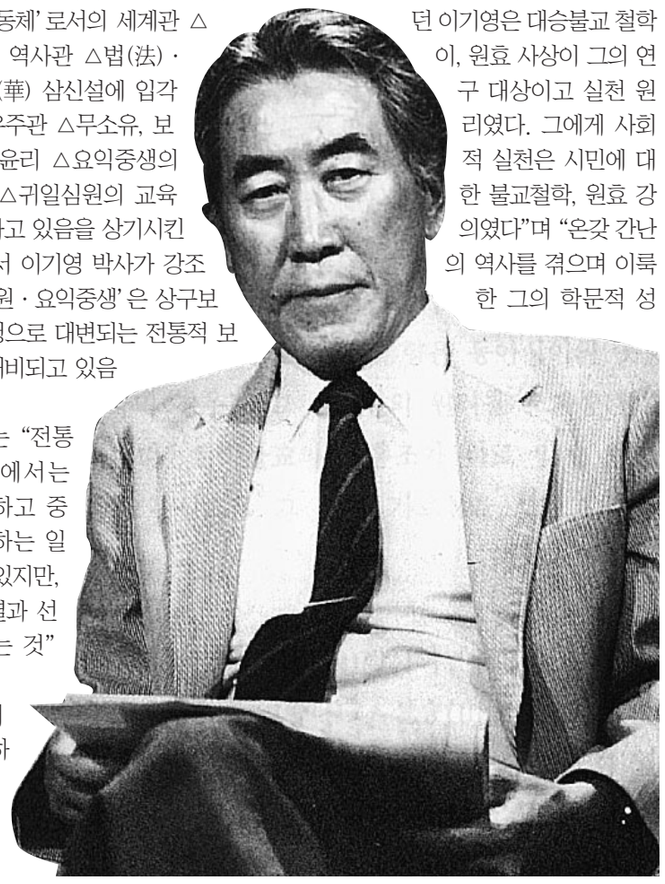
정 교수는 이기영 박사가 마지막 기조강연을 했던 1996년 11월 9일 '불교와 국가'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그의 사상을 되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는 예토로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정토로 구분하고, 세속적인 예토를 정토로 환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기영 박사는 이 같은 통념을 부수고 있다고 말한다. 정토와 예토는 본래 일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예토가 곧 정국(淨國)인데 중생들이 어리석어 이를 모르고 있으므로 둘은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도 둘이라는 점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이기영 박사는 강조했다"며 "결국 선생은 '진속불이'의 불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살이 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보살상에 대해서 이기영 박사는 "현세와 영원의 불이(不二) 상즉성을 깨달은 철학적 자각 위해 현세의 예토적 양상을 전변시켜 영원한 정토가 현장에 실현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새로운 인간의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이'의 보살관의 단면은 이기영 박사의 원효 연구에 드러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이기영 박사의 1988년 논문에서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화쟁의 공동체'로서의 세계관 △연기로서의 역사관 △법(法) · 보(報) · 화(華) 삼신설에 입각한 신관 · 우주관 △무소유, 보시의 경제 윤리 △요익중생의 정치 철학 △귀일심원의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이기영 박사가 강조한 '귀일심원 · 요익중생'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보살도와는 대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 교수는 "전통적 보살도에서는 보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분리돼 있지만, 원효는 우열과 선후가 없다는 것"이라며 "원효에게 있어 보리를 구하는 일이 곧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자이고 교육자였던 이기영은 대승불교 철학이, 원효 사상이 그의 연구 대상이고 실천 원리였다. 그에게 사회적 실천은 시민에 대한 불교철학, 원효 강의였다"며 "온갖 간난의 역사를 겪으며 이룩한 그의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실천은 21세기 보살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이기영 박사가 보여준 보살도의 핵심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기영 박사는 '현대인의 보살도'에 대해 "불교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생활을 위협 받으면서도 참기만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며, 부자가 혼자서 재부를 무분별하게 남용해도 좋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며 "불교는 모든 사태에 대해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것,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실천 방법으로 '육근 바라밀다'를 제안했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개인의 실천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완성, 불교토의 실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생이 남긴 말은 우리의 과제가 된다. 우리는 선생이 그러했듯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유가행파의 보살 : 무착의 전기에 보이는 공성의 통찰과 대비심'을, 크리스티나 셰러 숍 로잔느대학 교수가 '샨티데바의 승천 : 인습을 초월한 철학자 보살'을,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가 '삼계교 신행 스님의 보살행과 사회적 실천'을, 남동신 서울대 교수가 '원효, 성속불이의 거사불교' 등을 발표했다. 또한 심포지엄 직후에는 이기영 박사 20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부여 왕흥사지서 국내 最古 치미 출토

국립부여문화재硏 복원 거쳐 3일 공개

동승방에 올린 예술적 치미
당시 승려 높은 지위 가늠



부여 왕흥사지 동승방터에서 나온 남측 치미의 복원된 모습.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보물 제1767호)가 나와 주목을 받았던 부여 왕흥사지에서 이번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치미가 출토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는 2013~2014년 부여군 왕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 때 출토됐던 백제 치미를 복원해 11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치미는 동아시아 전통건축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붕의 장식기와로, 건물의 용마루 양 끝에 올려 건물의 위엄을 높이고,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하는 부재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장식된 막새문양과 발굴된 다른 유물을 비교해 볼 때 이번에 공개되는 치미는 왕흥사지 창건 당시(577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부소산 폐사지 치미, 미륵사지 치미 등 현재까지 알려진 고대 치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특히, 백제 사비기의 기와 제작기술과 건축기술, 건축양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출토된 치미는 전체를 한 몸으로 제작한 후, 상 · 하로 나누어 가마에서 구워낸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 승방터로 판단되는 건물지의 남북 양끝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고대 건물지에서 용마루 좌우의 치미 1벌(2점)이 함께 출토된 사례는 처음이다. 건물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파손된 채 오랜 기간 땅에 묻혀있어 파편들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남쪽 치미는 상부만, 북쪽 치미는 하부만 복원했으며, 3차원 입체영상(3D) 기술을 활용해 상하부 전체를 복원한 이미지도 만들었다. 이렇게 복원된 3D 영상 속 치미의 높이는 123㎝, 최대 너비 74㎝다.

왕흥사지 치미는 마름모꼴의 꽃장식인 연화문(蓮花紋), 구름문, 초화문(草花紋) 등의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됐고, 전체적으로는 꼬리 부분을 하늘로 향해 날카롭게 표현하여 마치 새가 꼬리를 세워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찰의 금당 혹은 강당 등 중요 건물에만 치미가 사용된 것과는 달리, 스님들이 사용하는 승방 건물에까지 치미가 쓰였다는 점은 당시 스님들의 높은 지위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출토된 치미는 오는 11월 29일부터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에도 출품돼 전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慧眼決書